http://dx.doi.org/10.5392/JKCA.2015.15.08.226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overty of People over 45 years old with Disability: Comparison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송인욱, 원서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uk Song(inugi@dcu.ac.kr) Seojin Won(wseojin@dc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중고령 장애인 | 사회적 배제 | 빈곤 | 고령화연구패널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overty of people who are 45 years old and over with disability. It also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area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overty. The researchers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fourth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e sample included in this study was 640 people who were 45 years old and over with disabilit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urban residents who were younger, did not live with a spouse, were not at workforce, and lived in a rented house tended to be on welfare. For rural residents, on the other hand, only age and marital statu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overty.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indicated political implications to diminish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people with disability.

■ keyword : | People with Disability | Social Exclusion | Poverty | Korean Logitudinal Study of Ageing |

접수일자 : 2015년 06월 16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31일
교신저자 : 송인욱, e-mail : inugi@dcu.ac.kr

I. 서 론

빈곤은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 이처럼 장애인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더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정책 및 제도적 관심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득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기회 평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2].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의 이중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해 최근 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틀로 사회적 배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3-6]. 빈곤을 소득의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으로 접근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박탈과 배제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이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의 물질적 궁핍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불이익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기되었지만, 장애, 성별, 연령,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의 관련성도 분명히 존재한다[4].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이 향유하는 복지수준은 거주 지역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도시와 농촌의 이질성이 빈곤층의 가구유형별 빈곤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7], 중고령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원과 기회접근의 제한,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빈곤의 측정과 도농간 빈곤격차,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면서도 연령대가 높은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참여를 보호받아야 할 핵심적인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빈곤화 현상을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장애인의 빈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계는 간과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및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현상을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논의한 연구나[8-10],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11] 있지만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을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도시와 농촌간의 빈곤격차를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지만[12-14], 빈곤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배제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빈곤격차와 빈곤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영향을 논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비교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배제 요인별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고령 장애인

우리나라에서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중고령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기준을 통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15]. 외국의 경우 중고령자를 45세부터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중장년 장애인으로 고령장애인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 중장년

층의 범위를 45세에서 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ADA)'에서는 4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노인법(OAA)'에서는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6]. 또한 미국 산업별 위원회연합(The Alliance of Sector Councils)에서는 근로자 연령 구분을 16~24세는 청년근로자, 25~54세는 장년근로자, 55세 이상을 고령근로자로 구분하다가 중고령 근로자(middle and old aged workers)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 근로자의 연령을 45~64세까지로 확장하였다[17].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규정하거나[18][19], 55세 이상으로 정의한 연구[20]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45세부터 중고령자로 정의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현황과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대상 연령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만 45-64세 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고령 장애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 연구[21]도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고령 장애인은 4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2. 사회적 배제

최근 들어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강조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이 아닌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빈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빈곤개념과는 다른 접근 즉, 소득중심의 빈곤측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배제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탈빈곤' 내지 '신빈곤', '양극화' 등의 논의가 다루지 못하는 주요 영역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22], 1990년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 배제를 이용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사회적 배제요인으로는, 물질적 복지, 건강, 교육과 교양, 생산적 영역 참여, 사회적 영역 참여[23], 소득, 노동시장의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24][25], 경제,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참여[26][27], 빈곤, 소득, 불평등, 상대적 빈곤, 실업, 장기실업, 평균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28]와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5]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하고 측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박능후와 최민정의 연구[3]에서는 경제, 주거, 고용, 건강, 교육, 사회참여의 6개 요소를 사회적 배제에 포함하였으며, 강신욱 외의 연구[29]에서는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을, 김안나[30]는 소득, 완전노동, 부분노동, 의료, 주거, 교육, 관계망, 정보/사회서비스의 8가지로 구분하여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경미 외(2013)의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물질에서의 배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의 4개 요인, 47문항으로 구분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포함하였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사회적 배제의 핵심영역에 주목하여, 경제적 배제 요인과 사회적 배제요인을 중심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요소를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 구성하고, 이 6가지 요소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

생물학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제한된 사회 참여, 관계 해체, 공간 분리, 정치적 무력감, 사회체계 접근기회의 제한, 결핍된 사회 통합, 심리적 우울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배제요소로 인해 생성되며 동시에 장애로 인해 사회배제 현상이 더욱 강화된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장애와 사회적 배제간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 사회적 배제가 치명적인 것은 여러 장벽들이 배제를 영구화하도록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낮은 교육수준은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이

것은 다시 소득이나 주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6].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가구 및 개인 소득이 낮으며, 이로 인해 빈곤율이 높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높고, 각종 동호회 활동 및 사교 모임 참여 등 다양한 사회 참여의 경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다[32]. 더욱이 중고령 장애인 집단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산업화 과정에 참여하고, 열악한 교육적, 의료적 인프라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다[21]. 또한 이들은 고령자 고용정책 및 장애인고용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삶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어느 집단의 사회적 배제보다도 핵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지속 혹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 간의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탐색은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이론 연구[33], 법·제도와 관련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 연구[34][35]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36], 여성장애인[1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4] 등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사회적 배제의 관점을 기반으로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중고령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제약과 역동성에 대해 사회적 배제 개념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을 경제적 빈곤만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이들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4차년도인 2012년 데이터를 2차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을 시작으로 짝수 연도에 조사를 시행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지역과 주거형태별 층화표집을 한 뒤 계통표집법을 적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가구의 가구원은 노트북을 이용한 대인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2012년에 조사한 4차년도 자료는 조사대상표본 9,758명 중 7,813명을 조사하여 80.1%의 표본유지율을 보였으며, 1차년도(10,254명)대비 표본유지율은 76.2%이다[37].

연구대상인 중고령 장애노인은 “지난 기본조사 이후 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즉 4차 기본조사 대상자 중 3차 기본조사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40명, 3차 기본조사 대상자 중 2차 기본조사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95명, 2차 기본조사 대상자 중 1차 기본조사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107명, 1차 기본조사에서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응답자 669명의 총 911명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사망 혹은 조사대상에서의 이탈로 4차년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52명을 제외한 659명을 추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자 19명을 제외한 총 640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사회적 배제, 빈곤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빈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비수급자: 0, 수급자:1)로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로서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배제요인 중 소득 요인은 근로소득을 투입하였는데, 근로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농어업소득 및 부업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소득 있음: 0, 소득 없음: 1)로 조사하였다.

노동 요인으로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계십

니까?"라는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 때 일이란 직장에 다니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0,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1로 코딩하였다.

건강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는데,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좋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중고령 장애인을 0,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중고령 장애인을 1로 코딩하였다.

주거배제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자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를 얻어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자기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응답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소유한 집)를 0,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라는 응답을 1로 코딩하였다.

교육에서의 배제는 EU의 '사회적 배제지표 2차적 지표'에서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 Level 2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을 교육배제로 보고 있다. 이 때, Level 2(전기중등교육)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교육을 의미한다([38]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인 중고령 장애인을 0, 중학교 이하인 중고령 장애인을 1로 재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사회참여 요인은 사회적 지지망의 측정을 위해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일 년에 한두번 이상 본다는 응답자를 0, 거의 볼 수 없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중고령 장애인을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남성: 0, 여성: 1), 연령, 혼인상태(배우자 있음: 0, 배우자 없음: 1)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에 거주한다는 응답자는 도시 지역 중고령 장애인으로, 읍이나 면에 거주한다는 응답자는 농어촌 지역 중고령 장애인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는 이분변수들의 경우 각 변수들의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고, 연속변수인 연령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사회적 배제요인인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 요인을 투입하여 각 요인들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471명(73.6%)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169명(26.4%)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는 54.6%와 45.4%였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52.1%와 47.9%였다. 연령평균은 도시 지역이 69.31세, 농어촌 지역이 70.38세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70.7%, 농어촌 지역에서는 74.6%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요인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빈곤상태를 설명하는 소득배제의 경우, 도시 지역(79.2%)이 농어촌 지역(71.0%)보다 소득에서 배제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노동배제의 도농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도시 지역(80.5%)이 농어촌 지역(66.3%)보다 노동에 배제되는 경우가 더 많아 지역간 노동의 사회적 배제에 차이가 있었다($p<.05$). 이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노동시장 진입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거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주거배제의 경우 자가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해 도시 지역(29.9%)이 농어촌 지역(10.1%)보다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하는 주거 배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교육배제는 농어촌(87.0%)이 도시(69.9%)에 비해 교육 배제의 경험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p<.05$). 이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교육인프라 및 교육시스템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참여배제는 도시 지역(21.1%)이 농어촌 지역(13.6%)보다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마지막으로 빈곤 격차에 대한 도농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12.5%, 농어촌 지역에서는 8.9%로, 도시 지역에서 수급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지역간 차이를 보여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 노동, 주거,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농어촌 지역보다 사회적 배제를 더 경험하고,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교육영역에서 도시 지역보다 사회적 배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도시지역 빈도 (평균)	도시지역 % (SD)	농어촌지역 빈도 (평균)	농어촌지역 % (SD)	χ^2
전체		471	73.6	169	26.4	
성별	남성	257	54.6	88	52.1	0.311
	여성	214	45.4	81	47.9	
연령°		(69.31)	(9.87)	(70.38)	(9.27)	41.626
혼인상태	유배우	333	70.7	126	74.6	0.912
	무배우	138	29.3	43	25.4	
근로소득	소득 있음	98	20.8	49	29.0	4.712*
	소득 없음	373	79.2	120	71.0	
노동	일하고 있음	92	19.5	57	33.7	14.031*
	일하지 않음	379	80.5	112	66.3	
건강	좋은 편임	77	16.3	26	15.4	0.086
	나쁨	394	83.7	143	84.6	
주거	자기 소유	330	70.1	152	89.9	26.430*
	전세/월세	141	29.9	17	10.1	
교육	고등학교 이상	142	30.1	22	13.0	19.151*
	중학교 이하	329	69.9	147	87.0	
사회참여	가끔 만남	372	79.0	146	86.4	4.426*
	거의 못 봄	99	21.0	23	13.6	
빈곤	수급자 아님	412	87.5	154	91.1	1.621
	수급자 임	59	12.5	15	8.9	

° 연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빈도와 퍼센트 대신 표기함.
*p<.05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모형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중에서는 연령과 혼인상태가 빈곤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 장애인 가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확률이 감소한다는 심진예의 연구결과[39]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중고령 장애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았는데(OR=4.810, 8.761), 이는 혼인상태와 관련해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가구주가 여타 혼인상태에 비해 근로빈곤율이 대체로 낮고[39], 배우자가 없는 장애노인가구가 빈곤확률이 더 높다는[40]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내에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가구내 수발과 돌봄을 일차적으로 담당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이나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 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노동배제와 주거배제요인의 경우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는 영향을 미쳐 지역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OR=13.146),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OR=10.515) 빈곤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자 외[12]의 연구에서 고용여부에 따라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거주 중고령 장애인에게 주거요인이 취약할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령자가 월세에 살고 있을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41]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측면에서 빈곤지속성과 빈곤격차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12]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고려할 때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할 경우 자가 소유 등의 주거요인의 개선이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OR	95% CI		OR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성별	0.772	0.359	1.663	2.114	0.491	9.094
연령	0.932*	0.898	0.967	0.869*	0.800	0.943
혼인상태	4.810*	2.350	9.845	8.761*	2.077	36.958
근로소득	0.683	0.102	4.562	1.845	0.059	57.661
노동	13.146*	1.351	127.930	21.764	0.604	784.320
건강	2.027	0.507	8.097	0.399	0.066	2.419
주거	10.515*	5.013	22.054	2.893	0.416	20.146
교육	2.128	0.859	5.270	1.877	0.146	24.168
사회참여	0.949	0.422	2.132	0.237	0.018	3.078
-2Log Likelihood	237.649			63.498		
LR x^2 (df)	117.754(9)*			37.785(9)*		

*p<.05

V. 결 론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비교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 수준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요인 중 근로소득, 노동, 주거, 교육, 사회참여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배제의 수준을 보여 지역별로 상이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위험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에서 배제된 도시 지역 중고령 장애인들은 근로소득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배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노동요인이 소득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가지가 다시 주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각각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배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35].

따라서 고용연계 복지정책(workfare)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및 각종 사업주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중고령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을 높이고 명목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배제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났는데, 현재의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차별주의, 빈곤, 불리한 이동권,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접근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세대이다[4].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인프라와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더욱 교육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 노동을 연계하여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 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에서만 노동배제와 주거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노동배제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66.3%)보다 도시 지역(80.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중고령 장애인의 취업률이 농어촌 지역보다 낮은 것은 중고령 장애인보다는 청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했거나, 중고령 장애인들이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임금근로 일자리로의 진입 자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중고령자의 노동참여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축어업 등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지역 중고령 장애인를 배려하는 고용연계 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고령자취업알선과 연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임금, 노동의 보장성과 안정

성이 반영된 고용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어 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배제 역시 전세와 월세 거주 비중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은 도시 지역에서 빈곤에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주거요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환경제공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의 배제와 주거 빈곤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임대기간이 5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와 유사한 주거안정 및 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42], 중고령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해서도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반영구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배제의 빈곤에 대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택을 본인 혹은 친인척이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43], 대출한도가 2억원이어서 농어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주택구입에 불리한 조건이다. 월세에 비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전세의 경우에도 농어촌에 비해 도시의 전세금 상승률이 높아 중고령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통해 도시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장애인 우대와 노인 우대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현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분석과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수준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에 포함된 대상자들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배제 측정 지표를 산정함에 있어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지표가 제외된 점, 역동적 분석을 단일 년도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적절한 분석 자료의 구축이후, 후속연구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이선우, “근로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 패널 로짓 혼합모델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4호, pp.177-198, 2013.

[2] 유완식, *장애인의 근로연계 소득 지원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3] 박능후, 최민정,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325-354, 2014.

[4]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포커스 집단면접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2호, pp.141-168, 2013.

[5] R. Levitas, C. Pantais, E. Fahmy, D. Gordon, E. Lloyd, and E. Patsios,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A Research Report for the Social Exclusion Task Force*, University of Bristol, 2007.

[6] A. O'Grady, P. Pleasence, N. J. Balmer, A. Buck, and H. Genn,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the Consequential Experience of Justiciable Problems,” Disability and Society, Vol.19, No.3, pp.259-271, 2004.

[7] 권혁진,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에 대한 빈곤평가의 문제: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방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pp.3-31, 2009.

[8] 박미은, 신희정, "생애사 연구를 통한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과정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 대전지역의 빈곤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3호, pp.167-193, 2010.

[9] 박영미,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pp.11-41, 2008.

[10] 유현숙, 곽현근,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pp.245-272, 2007.

[11] 배화옥, 김유경,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pp.55-76, 2009.

[12] 김혜자, 박지영, 고난난, 진나연, 김정은,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1호, pp.5-51, 2014.

[13] 김태완, 김미곤, 김문길, 정희선, *농어촌 빈곤실태와 정책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4] 김영주,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빈곤율과 빈곤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4호, pp.31-35, 2008.

[15] 이채식, 김명식, *중고령 장애인의 미취업간의 제반 특성비교를 통한 취업 결정 요인*, 제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16] 김성진, *농산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직업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7] 최운정, 박경수, 이석호,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pp.123-146, 2014.

[18] 김용탁, *고령장애인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7.

[19] 박혜전, *노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0] 전미리, 안선영,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전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5권, 제2호, pp.99-128, 2011.

[21] 이효성, 심의경,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고용활성화 방안*,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11.

[22] 윤성호, "Q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사회배제 인식유형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pp.207-236, 2008.

[23] A. Atkinson, B. Cantillon, E. Marlier, and B. Nolan,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4] C. Howard, P. Kenway, G. Palmer, and C. Street.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bour's Inheritance,* York: York Publishing Services, 1998.

[25] P. Edwards and J. Flatley, *The Capital Divided: Mapp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London*, London Research Centre. London, 1996.

[26] T. Buchardt, J. Le Grand, and D. Piachaud, *Degree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7] J. Bradshaw, J. Williams, R. Levitas, C. Pantazis, P. Townsend, D. Gordon, and S. Middlet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aper Presented for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2000.

[28] EU Commission,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29]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0] 김안나, “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가족과 문화, 제26권, 제1호, pp.237-265, 2014.
[31] 김경미, 김동기, 유동철, 신유리,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23권, 제1호, pp.47-64, 2013.
[32] 윤상용, *장애발생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가구 경제, 고용 및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3] 김동기, 이웅,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7권, pp.129-147, 2012.
[34]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pp.217-239, 2011.
[35] 이익섭, 최정아, 이동영,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 제14권, pp.49-81, 2007.
[36] 신동환,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GRI연구논총, 제16권, 제3호, pp.71-96, 2014.
[37] 한국고용정보원, http://survey.keis.or.kr
[38] 강현정, 김윤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23-334, 2011.
[39] 심진예,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이행에 관한 동태적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0] 백은령, 노승현,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재활복지, 제16권, 제3호, pp.81-108, 2012.
[41] 남상호, 권순현,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3-32, 2008.
[42] 하성규,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주택연구, 제17권, 제4호, pp.77-94, 2009.
[43] http://nhf.molit.go.kr

저 자 소 개

송 인 욱(In-uk Song) 정회원

- 1997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M.S)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Ph.D)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보장, 다문화복지